**Tex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2022년 성령강림절 선교 활동 보고**

**믿음의 삶 이루어 가기**

"사람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는 이디시어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 눈 앞에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인 온라인 기사 헤드라인이나 책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속담을 듣거나 읽을 때, 특히 이것이 우리 대부분이 경험한 것을 압축해서 표현할 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작성된 이력서나 기획안을 보냈으나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완벽하게 계획했지만 사소한 지연으로 여정이 무산되었을 때, 시작하기 직전 폭풍으로 인해 이벤트가 취소되었을 때, 좌절했거나 완전히 새로운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 했을 때가 그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우리 자신의 경험에 움찔하는 만큼, 속담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속담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어조와 가르침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 29:11) 이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위안이 되는 말은 그들이 당시 겪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이 평화롭고 풍부하며 희망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계획하지만 신은 웃는다"라고 했던가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다.

성령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심을 기뻐합니다. 성경강림절 특별헌금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하나님의 희망과 미래와 연결되어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청년자원봉사 프로그램(YAV), 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엄, "어린이 교육은 곧 세상의 변화" 프로그램과 여러분 교회의 지역공동체 지원 사역을 통해 우리는 젊은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돌보는 사역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희망의 미래이신 하나님, 저희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소서. 당신의 계획이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게 하시어,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이 한 가족으로 뜻을 같이하며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